

전북도, 올해 지역 균형발전 ‘역량 집중’

도로·철도·공항·대중교통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집중… 지역 성장·혁신도시 경쟁력 강화 ‘총력’

전북도는 올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 공항, 대중교통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도 건설교통국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도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SOC 구축으로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확충 △도로망 및 철도망 건설,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교통체계 구축 등 6대 분야 8개 추진전략, 30개 실행과제 등이다.

먼저,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구축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본설계 및 실시사업업체를 선정해 설계추진 등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2024년 착공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고시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세계 캠버리대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새만금 남북도로는 올해 7월까지 전체구간을 준공·개통하고,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지역 간 연결도로(20km)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종합 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새만금을 미래 교통망 실현의 장으로 조성을 위

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는 주요 거점 간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나선다.

국가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지방도 건설(21개소, 69km)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황산~금산사 IC 등 4개소를 준공할 예정이다.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된 전주~김천선, 전라선 고속화, 광주~대구선 등 3개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시설개선(어린이 41개소, 노인 9개소, 마을주민 10개소)과 초등 학교 통학로와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안전시설(무인단속 카메라 132대, 횡단보도 신호기 59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익산청,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맞춤형 주거급여(52천가구→52.5천가구)와 저소득계층 그린리모델링(600가구→820가구), 주거취약계층 임대보증금 지원(2047가구→855가구)을 확대 추진하고, 신혼

부부·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패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1,900동), 희망하우스 빈집재생(72동),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40동), 주택개량사업(874동) 등을 지속 추진한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29개소)을 추진하고, 공공디자인을 통한 멋스러운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경관디자인 개선, 간판개선사업(18개소)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50개소)을 추진 중이며, 올해까지 21개 사업을 마무리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행복콜 버스(12개시군, 112대) 및 택시(1,531개 마을) 서비스를 확대하고, 5개시(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주요 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ITS) 확대 및 3개시(군산, 익산, 김제) 버스정보시스템(BIS) 70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확충(특별교통수단 32대, 임차택시 50대, 저상버스 77대)해 배차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지역 성장 및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기반도 마련한

다.

지역개발사업(26개 사업), 섬발전사업(23개 사업),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7개 사업)을 통해 지역 성장잠재력 개발 및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목표이다.

지역건설업체 공사 수주를 62.4%, 하도급 참여율 61.5%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고 공사·기술용역 분야에 적용 중인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건설사업 관리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협의체운영,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상생발전도 도모한다.

이밖에, 도로, 하천, 환경 등 분야별 정보를 통합한 공간정보 분석시스템 플랫폼을 고도화해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불부합지를 정비(55개 사업지구 3만1,703필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윤기 도 건설교통국장은 “더 특별한 전북 시대를 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정보호 전북사고 관련 대책회의 진행 김중욱(오른쪽) 해양경찰청장이 6일 현장지휘관인 해양 3015함에서 전남 신안 정보호 전북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종호(왼쪽) 해군 참모총장과 수색·구조 관련 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학교 밖 청소년, 혜택 신청하세요”

‘밖꿈’ 교통카드 - 월 3만원 · 생리용품 - 2만 5000원 지원

전북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밖꿈’ 교통카드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연중 모집(올해 예산 소진시까지)한다고 6일 밝혔다.

‘밖꿈’ 교통카드는 9~18세 학업 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통해 학습과 직업체험, 자립하는데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1인당 월 3만원씩 연 최대 36만원(12회)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시작해 올해로 4년째이며 지난해에는 220명을 지원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9~24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00명에게 1인당 연 2만5,000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한다.

교통카드 및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149명이 새롭게 파악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률도 월평균 5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교통카드 지원 인원 220명 중 167명(76%)은 학업에 복귀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북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063-274-1388) 혹은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전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 문의하면 된다.

단, 지원 인원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청년의 생각이 정책으로’ ... 생생아이디어 · 28일까지 공모

사업당 최대 6000만원 지원... 일자리 등 5개 분야 아이디어를 시·군·청년단체 등과 협업 추진

전라북도도는 청년의 정책 참여 강화 및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3년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은 청년, 청년단체 등이 직접 구상·설계한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지원,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이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 참여예산 성격의 정책이다.

공모분야는 청년정책 5개 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포함한 청년 정책 전반과, 도내 심리학과 전공 청년 상담 멘토링, 실패 공유대회, 1인가구 청년 거주공간 수리 교육,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금융 교육 등 전라북도 청년협의체인 ‘청년정책포럼단’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은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1억5,000만원 등 총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되며, 청년 제안 아이디어를 활용해 시군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청년단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한다.

각 시·군은 최대 5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업당 최대 6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하는 청년, 청년단체 등은 공모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고유번호증(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을 등록된 시·군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북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서류심사 후 청년정책 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발표심

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또한, 올해는 최종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운영에 전문성을 더한다.

도는 사업 선정에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청년 참여도, 청년 체감도 등을 평가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이 참여 주체가 되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2023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4월 28일까지 접수

전북도는 4월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3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양봉농가에게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라북도과 연결한 타시도 시·군·구의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다.

향후 5월부터 9월까지 지급 제외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모집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김양욱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원로교수 및 권역교수
- 전북대학 부교장 겸정당장교수
- 스피치사격서원 집행위원장
- 한가스피치 동반협회 권역회장
- 전북언어교육원 및 기획, 단과목장교수
- KBS TV아침매장, MBC TV, JTBC, KBS2 등 10개 방송사
- 스피치 강연가로서,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다들 배우 났, 났' '스피치 101' 등
- 스피치 저서, 평생교육사, 식생활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임〉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관과정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